

## 추억과 AI가 만나는 '시소총장', 9월 총장으로 개관

K컬처·AI 결합 주민체험형 뉴트로 문화복합공간  
관광객 유치·지역 상권 활성화 이끌 신(新)거점 기대

광주 동구는 총장로 원도심에 조성 중인 인공지능(AI) 창의 문화복합공간 '시소총장'을 오는 9월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시소총장은 추억을 소재로 K컬처와 AI 기술을 결합해 뉴트로 감성을 살린 주민체험형 문화복합공간으로, 지역 관광과 상권 활성화를 이끄는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1년 5월 시작됐으며, 총장로5가 59-2번지 일대 부지면적 766.4㎡, 연면적 1,415.67㎡ 규모의 지상 3층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건물에 AI 기반 전시관과 문화복합·커뮤니티 공간을 조성·운영할 계획이며, 건축물 조성에 72억 원, 내부 콘텐츠 조성에 38억 원이 투입됐다.

'시소총장'이라는 명칭은 지난해 12월 AI 기반 창의문화복합공간 명칭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시소(時所)'는 '시간의 소중함'을 뜻해 소중한 시간을 담아내는 문화복합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동시에 문화와 지역 상권의 중심인 시내(총장로)로 사람들을 '소집'하는 중심지이자, 놀이기구 '시소'처럼 누구나 즐겁게 오르내리며 놀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이미지를 함께 품고 있다. '시'는 공간 조성에 접목되는 핵심 기술인 AI(에이아이)와 형태가 닮아 디지털 기술과 창의 문화가 만나는 거점이라는 상징을 더해지며, 주민과 관광객이 편히 들렀다 쉬어 가는 장소라는 점에서 전라도 방언 '쉬소(쉬어 가세요)'와도 발음이 닮아 지역적 정체성과 친근함을 살렸다.

시소총장은 '기록'을 키워드로 한 3개 층의 특화 공간으로 구성된다. 1층(연면적 428.35㎡)은 '보는 것의 기록'을 주제로 전시홀, 독립서점형 서재, 총장축제 기록관, AI 인생네트 스튜디오 등으로 꾸며진다. 관람객은 얼굴·감정 인식 기술을 활용한 이미지 기록 서비스, OCR(문자인식) 기반 문서 기록 자동 변환, AI 필름 복원과 이미지 리마스터링, 클라우드 내 AI 포토 기록 서비스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또 기록 아카이브 전시와 연계해 사진·영상 상품 출력, 방문형 체험권 판매 등으로 이어지는 수익 모델도 함께 운영된다.

2층(457.58㎡)은 '소리의 기록'을 콘셉트로 한 LP 청음관, 오픈홀, 음성 복원 및 라디오 존, 워크숍 존 등으로 구성된다. 이 공간에서는 음성을 텍스트



로 변환하는 AI 기술과 AI 음성 일기, 개인 맞춤형 음향 로고 제작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오래된 음원을 복원하는 AI 음향 복원과 감정 필터링 기술, 오디오북 제작, '나만의 AI 사운드 티크' 판매 등이 이뤄지며, 소규모 공연과 클래스, 워크숍 등을 위한 대관 및 티켓 판매를 통해 새로운 문화·관광 콘텐츠와 수익 창출을 동시에 꾀할 계획이다.

3층(268.48㎡)은 '감정의 기록'을 주제로 한 감정 데이터 기반 카페, 창작 존, 굿즈 존, 감정 전시 존 등으로 구성된다. 감정 AI를 활용해 조영·향기·음향이 연동되는 체험형 카페에서 이용객의 감정 데이터를 시각화해 보여주고, 이를 바탕으로 감정 기반 큐레이션 굿즈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총장로 4·5가 장인들과 협업해 로컬 스토리가

담긴 수공예품과 기념품을 제작·판매하고, 추억을 소재로 한 먹거리 메뉴를 개발·판매함으로써 골목 상권과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동구는 2월 중 전시기획 용역 업체 선정을 마치고 내부 콘텐츠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한 뒤, 전시물 제작·설치 및 내부 공사를 추진해 9월 중 시소총장을 정식 개관할 계획이다.

동구 관계자는 "시소총장은 추억과 K컬처, AI 기술이 어우러진 뉴트로 감성 문화공간이자, 총장로 관광과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며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편하게 찾는 도심 속 문화 놀이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개관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수 기자

광양시, 일상 공간이 예술이 되는 '한 평 갤러리' 확대 운영  
회화에서 조각·공예까지... 생활 속 예술 향유 기회 넓혀

광양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한 평 갤러리'를 올해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 평 갤러리'는 소규모 공간에 작품을 전시해 시민과 예술의 거리를 좁히는 생활밀착형 전시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회화·평면 위주의 작품을 선보이며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는 기존 회화 중심 전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조각·공예 분야 작품을 새롭게 포함해 전시 장르를 다양화한다. 이를 통해 평면 작품뿐 아니라 입체 작품이 주는 공간감을 시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시는 매월 2개소에서 각각 1점씩, 총 2점의 작품을 순환 전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시 장소는 시민 이용 빈도가 높은 공공시설과 생활 공간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2월부터 12월까지 광양읍사무소 야외 공간과 마동근린공원에 작품을 전시한다. 이번 작품은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됐으며, 매월 작품을 교체해 공간에 새로운 분위기를 더할 계획이다. 특히 야간에는 갤러리 전용 조명을 설치해 낮과는 또 다른 분위기의 예술 공간을 연출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포토존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광양시는 앞으로도 '한 평 갤러리'를 통해 지역 작가들의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작품을 선보여 생활 속 문화예술 향유 기반을 넓혀 나갈 방침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작은 공간이지만 한 점의 작품이 주는 울림은 결코 작지 않다"며 "올해는 조각·공예 분야까지 확대한 만큼 시민들이 보다 다채로운 예술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작품 교체는 매월 마지막 날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예술과 문화산업팀(☎061-797-3839)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신선호 기자

나주문화재단이 한국 현대연극사의 대표작 '만선'을 무료로 선보이며 시민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 공연예술 저변 확대에 나선다. 나주문화재단은 2026년 첫 기획 공연으로 연극 '만선'을 오는 2월 27일과 28일 이틀간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만선'은 동해 만바다의 배 위에 밧줄로 묶인 한 가족의 삶을 통해 인간 존재와 사회 구조를 깊이 있게 조명한 한국 현대연극의 대표작으로 시대를 넘어 오늘의 현실을 비추는 작품성을 인정받아 꾸준히 사랑받아 왔다.

이번 공연은 배우 이기영이 총괄 프로듀서를 맡고 전문 연극단체 극단 돌출양

## 한국 현대연극 걸작 '만선', 나주서 펼쳐진다

27일, 28일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 선보여... 인터넷 사전 예약제 운영

지가 무대를 꾸미며 탄탄한 연기력과 연출력을 갖춘 배우진이 참여한 작품의 완성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공연은 2월 27일 오후 7시 30분, 2월 28일 오후 3시 총 2회에 걸쳐 진행되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며 관람료는 무료로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수준 높은 공연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예매는 네이버에서 '나주문화예술회관'을 검색해 네이버 플레이스 예매 창을 이용하거나 재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재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우수 고전 연극 콘텐츠를 지역에 제공하고 시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전문 연극단체 초청을 통한 공연 수준 향상과 기획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전동 나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연극 '만선'은 오늘날 우리 사회를 성찰하게 하는 깊이 있는 작품"이라며 "시민들이 공연을 통해 인간과 삶, 사회를 함께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주/이명열 기자



## 영광군, 2026년 작은미술관 전시작품 공모 추진

지역작가전과 전국 공모 병행 운영으로 전시 다양성 확대

영광군은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20일까지 2026년 작은미술관 전시작품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영광군이 운영하고 있는 법성포구, 법성포뉴타운 야외무대 앞, 백수노들광장, 연산면사무소 앞 등 작은미술관 4개소에 전시할 회화, 서예, 사진, 공예, 미디어 등 시각예술 전 분야를 대상으로 3월 11일부터 3월 20일까지 신청 접수하며 심사를 거쳐 3월말까지 전시작품을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작품은 오는 4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총 4회차로 구분해 1~2회차는 '지역작가전'으로, 3~4회차는 지역 제한

없이 '일반공모전'으로 전시되며,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는 일상속에서 감성이 넘치는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작은미술관이 일상에서 감성 넘치는 예술작품을 편하게 만날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도록 전시 콘텐츠의 다양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모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영광군 대표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내용은 영광군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061-350-5695)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이현식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

보다나온 농어촌

농

지가 있다면

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어

금이 있습니다

쪽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